



‘예비역’ 김선빈 1군 등록 고민되네

강한올 부상으로 이탈... 유격수 자리 비상
오늘 전역 김선빈 당장 엔트리 넣고 싶지만
안치홍처럼 될까... 김기태 감독 “신중히 결정”

KIA 타이거즈가 유격수 고민에 빠졌다. 강한올과 김선빈이 고민의 중심이다. KIA 타이거즈는 20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유격수 강한올을 말소하고 멀티 플레이어 고영우를 등록시켰다. 부상에 따른 변동이다. 강한올은 지난 15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수비 도중 슬라이딩을 시도한 주자 오지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두 경기에서 결정했던 강한올은 허리 통증 등으로 결국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최근 공-수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굳힌 만큼 강한올의 엔트리 제외는 큰 손실이다. 톱타자 노수광, 4번 타자 나지완, 돌아온 안치홍, 포수 백용환이

줄줄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유격수까지 빠지면서 그 충격은 더 크다. 20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강한올의 엔트리 제외 소식을 전한 김기태 감독은 “마음이 아프다. 면담을 했는데 본인도 많이 속상해 한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고민 끝에 강한올을 엔트리에서 제외했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김선빈의 등록 여부를 두고 김기태 감독이 고민에 빠졌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해왔던 김선빈은 21일 전역을 한다. 22일부터 KIA 선수로 될 수 있지만 엔트리 등록에 따른 부담이 있다. 전력이 없던 김선빈을 등록할 경우 FA영입 등으로 인한 20인 명단을 재출할 경우가 발생하면 한 자리의 여유가 사라지

게 된다. 안치홍의 등록 상황과도 조금 다르다. 안치홍의 경우 김선빈보다 2주 먼저 제대를 한 만큼 팀 전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계산을 했었다. 하지만 김선빈을 당장 등록을 한다고 해도 최대 8경기밖에 뛰지 못한다. 아직 가을 잔치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고민스럽다. 팀의 새 전력으로 가을잔치까지 이끌고 8경기 이상을 뛰게 된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반대로 가을 잔치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의 김선빈의 등록이 의미가 없게 된다. 안치홍의 부상 사례도 김선빈의 등록을 망설이게 한다. 팀에 바로 합류를 하기 위해 반반의 준비를 했던 안치홍도 복귀 후 4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부상으로 엔트

리에서 빠졌다. 2년 동안 뛰었던 경기보다는 훨씬 긴장감과 수준이 높은 1군 경기를 하느라 무리가 온 것이다.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진 상태. 김기태 감독은 “준비는 잘 됐다”고는 하는데 1군 하고는 다르니까 김선빈의 등록 여부를 놓고 근력 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예정이다. 최근에 경기를 제대로 뛰지 못한 점도 고민이다. 2군 시즌이 일찍 끝난 만큼 경기를 많이 쉬었다. 안치홍의 부상 경우도 있고 신중하게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내야 수비의 핵심이자 타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야 할 강한올과 김선빈. 갈 길 바쁜 KIA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비역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가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이 터닝 포인트... 인비 언니 보고 많은 것 느껴”

예비역 챔피언 전인지 귀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비역 챔피언십을 제패한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귀국했다. 18일 끝난 예비역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대회 최다 언더파, 최소타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전인지는 20일 낮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성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전인지는 우승 스코어 21언더파 263타는 1992년 벤티 킹(미국)이 LPGA 챔피언십에서 적어낸 267타를 뛰어넘은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소타 기록이다. 또한, 21언더파는 썬아니(대만) 등 4명이 갖고 있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19언더파)을 넘어선 새 기록이다. 전인지는 “어제까지 프랑스에 있을 때

만 해도 될 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공항에 오니 많은 분이 축하해 주셔서 우승했다는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올 시즌 화려하게 미국 무대에 데뷔한 전인지는 한 동안 우승 소식을 전해 주지 못했다. 전인지는 “올림픽이 터닝 포인트였다”면서 “(박)인비 언니의 플레이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인지는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일본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일본여자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타이를 방어와 함께 LPGA 투어와 일본투어를 오가며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전인지의 팬클럽 ‘플라잉 텀보’ 회원들이 마중나와 전인지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연합뉴스

“아픈 것도 팀이 이기면 다 낫더라”

덕아웃 T 특독

▲그 심정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유격수 박찬호의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1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 수비가 끝난 뒤 박찬호가 고졸 신인 최원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이날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최원준은 첫 타자부터 실책을 기록하는 등 아찔한 1회를 보냈다. 최원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좀 억울하다. 누가 누구한테 뛰라고 하느냐는 팬들의 댓글을 봤다”고 울상이 된 박찬호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위로를 해줬다. 우리 팀에서 나만 최원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속스럽게 웃었다. 크고 작은 실수로 팬들을 자주 들뜨게 하는 만큼 그 마음을 잘 안다는 박찬호다. ▲다시 보니까 정확히 스트라이크 더라고요 =1군에서의 경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는 신인 외야수 이진영이다. 이진영은 지난 5월31일 처음 1군에 등록됐다가 6월1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그리고 확대엔트리 적용되면서 다시 1군에서 경기를 뛰게 됐다. 이진영은 “타석에 서면 두

수와 김종국 코치님만 보인다. 공도 잘 안 보인다”며 “어제도 타석에서는 다 볼로 봤는데 나중에 화면을 다시 보니까 정확히 스트라이크였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기면 다 낫죠 =김기태 감독은 지난 1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덕아웃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했다는 게 김 감독의 설명이었다. 몸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감독은 “어제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다. 아픈 것도 팀이 이기면 다 낫더라”고 웃었다. ▲딱 하나가 아쉬워요 =자신의 승보다는 팀의 승이 우선이라는 고효준이다. 고효준은 지난 18일 한화전 선발로 나와 4이닝을 1실점을 막은 뒤 5회 몸에 맞는 볼에 이어 2루 송구 실책을 하면서 5회를 막지 못하고 강판됐다. 이날 고효준에 이어 투입된 불펜진이 위기를 잘 막으면서 경기는 3-1 승리로 끝났다. 고효준은 “첫 승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 않다. 팀 승리가 중요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잘 해주어서 이겼다. 딱 하나 번트 수비가 아쉽다. 그날 경기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다”며 “5회까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수로 5회를 채우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 창단 최다승 간다

오늘 홈서 K리그 클래식 수원전... 11승 도전

광주 FC가 K리그 클래식 창단 최다 승을 노린다. 광주 FC가 2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10승10무10패로 승점 40점을 쌓으면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주 자리를 바꾼 6위 성남 FC와는 1점차, 3위 울산과는 5점차로 뒤져있다. 올 시즌 가장 큰 목표로 잡았던 상위 스플릿 진출 가능성은 열여 놓았지만 9위 수원에 5점차로 쫓기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간격을 벌려야 한다. 광주는 앞선 홈경기에서는 상주 상무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무려 9경기 만에 안방에서 승리를 신고하면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던 광주다. 하지만 지난 라운드 전남 원정경기에서는 0-2 패를 기록하면서 무패행진이 중단됐다. 폭우 속 열두에서 패배를 기록한 만큼 체력이 관건이 될 분위기 반전의 무대다. 광주의 클래식 무대 최다승 도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K리그 클래식 최다승을 기록하게 된다. 광주는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2011년

9승, 2012년 10승, 2015년 10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승리를 더하면 창단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상위 스플릿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남기일 감독은 “스플릿 라운드 전까지 3경기 남았는데 차분하고 냉정하게 기다림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잘했고 남은 3경기 준비해서 노력하겠다”며 냉정함을 찾는 걸 우선 목표를 했다. 광주는 올 시즌 수원에 1승 1무 무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주전급 선수인 권창훈과 염기훈 등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제몫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던 이종성과 K리그 챌린지 득점왕 출신 조나탄이 경고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광주 역시 ‘에이스’ 정조국과 ‘수비의 핵’인 김병민이 각각 부상과 경고누적으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수원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최다승 기록에 도전하는 광주가 수원 전 승리를 발판 삼아 상위 스플릿이라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천만달러를 잡아라

PGA 투어 챔피언십 내일 개막... 김시우 출전

2015-2016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펼쳐진다.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열리는 투어 챔피언십은 세차례 플레이오프 대회를 거쳐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이 출전하는 시즌 마지막 대회다. 총상금 850만 달러와 우승 상금 153만 달러와는 별개로 페덱스컵 랭킹 1위를 차지하는 선수에게는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준다. 이 대회에는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김시우(21·CJ대한통운)가 출전한다. 2부 투어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김시우는 올 시즌 원탑 챔피언십 우승에 힘입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현재 페덱

스컵 랭킹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시우가 플레이오프 최종 승자인 페덱스컵 랭킹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페덱스컵 랭킹 1~5위 선수들이 상위권에 들지 못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김시우가 최종 승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 톱랭커들과 경쟁하는 대회에 진출한 것만해도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김시우는 올해 신인 선수 자격을 얻어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를 수도 있다. 그의 신인왕 경쟁자는 페덱스컵 랭킹 9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다. /연합뉴스